

##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사회보다 우주의 근원에 대해 철저하게 탐구해야 한다.
- ②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이성을 배제하고 신의 의지에 의탁하여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므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 ⑤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서 보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lt;보기&gt;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가운데가 텅 빈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이 무한하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으니[不仁] 만물을 질료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聖人)도 편애하지 않으니 백성을 질료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을: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맨흙 위에 나오게 되자 서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고 상대방을 침의 거품으로 적셔 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相忘]만 못하다. 진인(眞人)은 덕을 지니고 조화된 마음으로 천하에 순응한다.

&lt;보 기&gt;

- ㄱ. 갑: 무지하고 무욕한 사람이 되어야 소박한 덕을 회복할 수 있다.
- ㄴ. 갑: 만물 간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不爭)을 실현할 수 있다.
- ㄷ. 을: 모든 분별을 잊어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 ㄹ. 갑과 을: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 예법(禮法)을 고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탐냄[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모두 버려라. 올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을 살게 된다.
-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마라. 자신을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마라.

- ① 연기(緣起)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의 대상일 수 있다.
- ② 올바른 견해[正見]를 얻기 위해 쾌고의 양극단을 지향해야 한다.
- ③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열반(涅槃)에 이를 수 있다.
- ④ 자아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
- ⑤ 현생에서 업(業)을 지은 자는 이번 생에서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4.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성장 자체는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을: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은 없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 ① 갑: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언제나 유용한 절대적 지식이 있다.
- ② 갑: 정직과 근면의 덕은 그 자체로 도덕적 목적이 될 수 있다.
- ③ 을: 인류의 궁극적 목적이 언제나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규정한다.
- ④ 을: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참된 실존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편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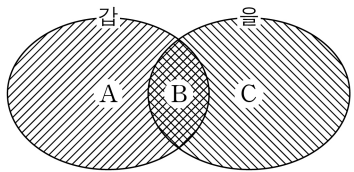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 ①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 ②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 ③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일 뿐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
- ④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 ⑤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근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굴의 죄수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통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연못에 비친 상(像), 동식물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본 다음, 마침내 태양 자체를 보게 된다. 을: 악덕과 덕은 단순히 이성 또는 관념들의 비교에 의해 발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악덕과 덕의 차이는 이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소감에 의해 식별된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보 기>

- ㄱ. A: 이성은 단독으로 개인의 선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다.  
 ㄴ. B: 영혼의 비이성적 능력은 이성적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  
 ㄷ. B: 선은 사람들의 심적 반응에서 나온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이다.  
 ㄹ. C: 오직 인간의 경험과 관찰만이 지식의 궁극적 원천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의 몸은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생겨 납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서로 발하고[互發] 의존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각 주된 배(所主)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所以]은 이입니다. 따라서 이와 기는 선후 혹은 이합(離合)이 없으므로 서로 발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 기>

- ㄱ. 갑: 기가 발할 때 이의 주재로 나타나는 감정은 선할 수 있다.  
 ㄴ. 을: 성(誠)으로써 기질을 교정하여 마음의 본체를 회복해야 한다.  
 ㄷ. 을: 측은지심은 사랑[愛]을 포함[兼]하지만 그 역은 불가하다.  
 ㄹ. 갑과 을: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한 이의 측면만을 말한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공산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 의해 다수의 임금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다. 폭력적 혁명과 계급 폐지를 거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체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나타난다.  
 (나)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소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① (가): 공장제 수공업유지함으로써 노동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② (가): 계급 자체가 소멸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실현되어야 한다.  
 ③ (나): 모든 정치 조직을 철폐하여 시장 경쟁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④ (나): 사회적 안전과 복지의 토대 위에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  
 ⑤ (가)와 (나): 노동 착취 해소를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9. 중국 불교 사상이 갑, 한국 불교 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자신의 성품은 그릇됨도, 어지러움도, 어리석음도 없다. 생각 생각마다 지혜로 관조하여, 자신의 성품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아야 한다[頓悟頓修]. 선정은 지혜의 본체이고,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다.  
 을: 자신의 성품이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단박에 깨치더라도 오래된 습기(習氣)는 끝내 제거해 끊기 어렵다. 만약 지혜로써 노력하여 그 습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안식과 평정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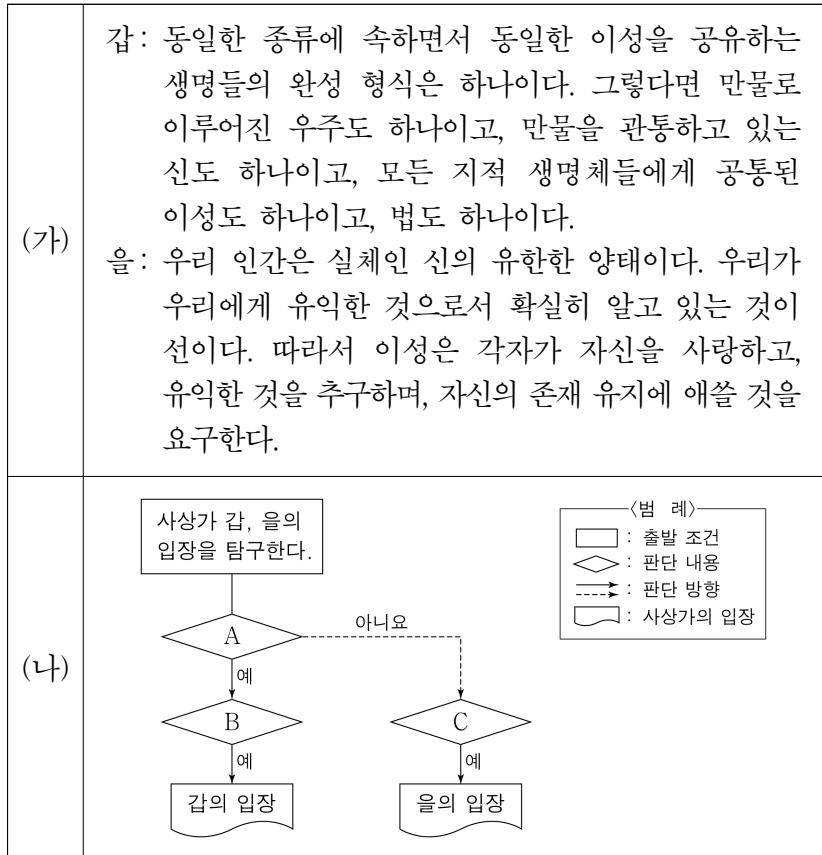
- ① 갑: 자신의 고유한 독자성을 파악해 본래 마음을 곧바로 보아야 한다.  
 ② 갑: 깨달음의 출발점을 마음의 내부가 아닌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③ 을: 문자화된 부처의 말은 허상이므로 수행의 방편이 될 수 없다.  
 ④ 을: 내면의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佛性)을 갖추 수 없다.  
 ⑤ 갑과 을: 선정과 지혜는 서로를 떠나지 않으므로 함께 닦아야 한다.

10.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갑: 플라톤 학파의 책을 읽고 무형의 진리를 탐구하게 되었으며, 신이 만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이 참으로 실재(實在)하며 항상 동일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을: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며, 이것은 감각을 통해 확인된다. 그런데 운동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의 제1원인, 즉 부동(不動)의 원동자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 ① 갑: 이성을 통한 신의 존재 증명만으로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② 갑: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은 모두 지혜의 덕의 다른 표현이다.  
 ③ 을: 신의 창조 계획은 동식물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  
 ④ 을: 선을 추구하라는 계율은 자연법의 다른 계율로부터 도출된다.  
 ⑤ 갑과 을: 신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잘못된 의지의 원인이기도 하다.

11.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A: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ㄴ. B: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ㄷ. C: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  
 ㄹ. C: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굽은 나무는 반드시 틀을 대어서 불에 쪼면 뒤에야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숫돌에 갈고 닦은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도 예의(禮義)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을: 버드나무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인의(仁義)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의를 해치도록 이끄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법칙(天)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② 갑: 인간은 성정(性情)이 이기적이어서 구성된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  
 ③ 을: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왕도(王道)의 근본이다.  
 ④ 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면 본심을 잃어도 대장부가 된다.  
 ⑤ 갑과 을: 소인도 스승의 교화를 통해 양능(良能)을 습득할 수 있다.

1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어떤 욕구는 자연적이고, 어떤 욕구는 공허하다. 또한 자연적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은 필수적이고, 어떤 것은 단지 자연적이기만 하다.

을: 쾌락이 아닌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 ① 갑: 고통 자체는 자연적이지만 고통의 원인은 비자연적인 것도 있다.  
 ② 갑: 모든 쾌락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쾌락의 크기에는 한계가 없다.  
 ③ 을: 타인을 위한 자기 선의 희생은 고통스러워도 그 자체로 선이다.  
 ④ 을: 인간과 동물이 공유한 욕구 충족만으로 교양의 증진이 가능하다.  
 ⑤ 갑과 을: 고통이 부재한 상태 그 자체는 쾌락으로 볼 수 없다.

1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한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 ①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있다.  
 ②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일 뿐 무제약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③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④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⑤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15.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知)와 행(行)의 공부는 서로 나란히 짝하여 이르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두 발이 서로 번갈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점차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을: 지와 행을 사람들이 둘로 나뉘 보기에 한 생각[一念]이 일어날 때 그것이 불선해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지행합일을 말하는 이유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행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 ① 갑: 궁리(窮理)와 역행(力行)은 경중으로 보면 궁리가 더 중요하다.  
 ② 갑: 격물(格物)은 의념이 향하는 대상[事]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③ 을: 치지(致知)는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서 지극히 실행하는 것이다.  
 ④ 을: 양지(良知)는 선악을 판단할 뿐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⑤ 갑과 을: 인욕을 없애 외부 사물에 내재한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 4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16.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고 동일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해 타인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킨다. 이처럼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 ① 갑: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 ② 갑: 주권자는 계약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인공적 인격이다.
- ③ 을: 자연법은 국가 수립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다.
- ④ 을: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공통 권력이 존재해야만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17.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친애하는 ○○에게

건강하다는 서신을 받으니 안심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의 논의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본성적으로 “나는 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나는 부패한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나는 음악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개구리 소리를 싫어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예들로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은 기호(嗜好)를 본성[性]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성선(性善)의 이치를 논하며 기호로써 그 의미를 밝혔던 것입니다. 제 견해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 선생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① 인간은 하늘이 내린 명령(天命)에 근거한 본성을 동물과 공유한다.
- ② 의(義)를 꾸준히 실천한 이후에야 비로소 선한 마음이 형성된다.
- ③ 홀로 있을 때에도 이법적 실체[天]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 ④ 인간만의 고유한 본성도 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악으로 기울 수 있다.
- ⑤ 도의적인 마음에 상충되는 욕구[人欲]를 완전히 극복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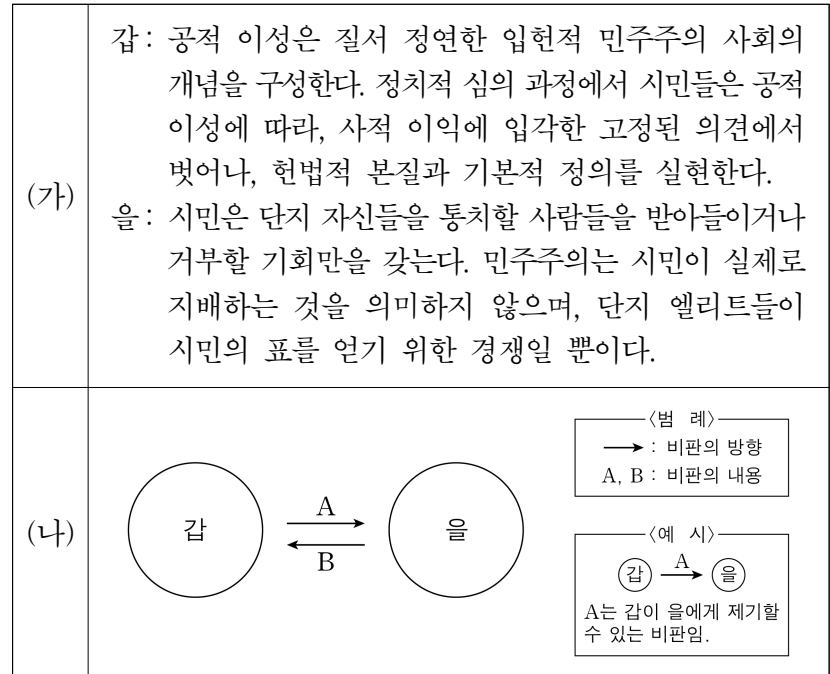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일깨울 수 있다. 과거는 새로운 세대들의 시민 교육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보 기>

- ㄱ. 애국심은 공적인 의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적 열정이다.
- ㄴ. 애국심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이다.
- ㄷ. 애국심은 법과 자유를 공유하는 시민들 사이의 대승적 사랑이다.
- ㄹ.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함께 기억하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시민의 역할은 정치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만 국한됨을 간과한다.
- ② A: 공정한 심의는 소수 전문가의 의사에만 의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시민 전체의 의견에 근거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 ④ B: 선출된 정치권력은 시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B: 시민은 정치 문제에서 판단력과 책임감이 취약함을 간과한다.

20.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기 때문에 그 도(道)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오대주를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 (나) 우리의 도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學)은 곧 동양의 학이다. 그런데 서양의 학은 우리의 도와 같은 듯하지만 다르다. 그들은 천주(天主)의 가르침에 따른다면서도 군대를 보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교당을 세운다.

<보 기>

- ㄱ. (가): 유교적 가치(正德)는 서양의 물질문명(器)과 병행될 수 있다.
- ㄴ. (나):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誠)과 경(敬)을 실천해야 한다.
- ㄷ. (나):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 ㄹ. (가)와 (나): 억울함이 해소된 후천(後天) 세계는 죽음 이후에 실현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